

민주, '김건희 특검법' 끝까지 간다

28일 본회의 통과 안되면 내달 4번째 발의 '채상병 국조'까지 '쌍끌이 공세' 가능성 커 박찬대 "검찰독재정권, 광기 어린 정치보복"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12월에 또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0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28일로 예상되는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다면 12월에 곧바로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이은 법안 부결이 반복될수록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이 12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다면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추가조작 개입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네 번째로 발의

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본회의를 앞두고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한정된 수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는데, 법안을 재발의할 경우 수사 대상은 다시 늘어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지난 15일 이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여당이 특검법 반대 단일대오를 더욱 굳히면서 재의결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판결로 특검법 추진 동력을 약화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별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특검법 통과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60-70%에 이르는 만큼 법안 통과를 밀어붙여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당내 기류다. 이 대표의 1심 판결로 민주당이 불리해진 것은 맞지만, 국민의힘 역시 내부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언제든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도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 대통령 비방글은 란으로 당내 갈등이 커지는 형국 아닌가"라며 "친한(친한동훈)계가 수세에

몰리면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국정 조사를 두고 의견을 요청하는 등 '채상병 국조'가 가동되면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함께 소위 '쌍끌이 공세'로 여당을 압박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도 여당을 향해 특검법 수용을 강하게 촉구하며 이탈표를 끌어내는 데 공을 들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벌어지고 있는 여당의 공격에 대해 "야당 대표를 공격한다고 김건희 여사

범죄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보편적 상식이 김 여사에겐만 예외일 수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김 여사도 다른 국민과 똑같이 수사받고, 잘못이 있으면 처벌받으라고 촉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경기도 법인가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한 것을 두고서는 "검찰 독재정권의 집착과 광기가 어린 정치 보복"이라고 비난했다. /김진수기자

'쇄신 요구' 숨 고르는 한동훈

친한 "추 사법리스크 당력 집중...대통령실 대대적 개편 필요"

대표 취임 후 '쇄신 드라이브'를 걸어 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인적 쇄신 의지를 밝힌 만큼 지금은 대통령실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할 시기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20일 SBS 라디오에서 당내 쇄신의 목소리가 사라졌다는 지적에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선고 공판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골대 앞에서 골을 놓아야 하는데 자꾸 백패스 하는 얘기를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개각 기류에 대해 "대통령께서 지난 담화에서 변화와 쇄신을 말씀하셨으니 여러 고민과 검토를 하실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 공판이 열리는 25일까지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로키 모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여당 내 단일대오를 공고히 해야 하는 상황도 한 대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여당 내 쇄신과 변화의 목소리가 다시 커질지는 조만간 이뤄질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선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장수 장관' 교체 등의 개각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대통령실 내 '김 여사 라인'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나 업무 배제 등으로 자연스러운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당내에서 제기된다.

친한계는 인적 쇄신의 포인트는 장관 교체가 아닌 김 여사 라인에 대한 확실한 조치라면서 대통령실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김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김 여사 라인에 어떻게 국정을 좌지우지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정리가 제일 우선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실도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인적 개편의 수위가 국민 눈높이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 대표가 재차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실의 쇄신 의지가 미진하다면 한 대표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민심에 맞지 않는 인적 쇄신 방향이라면 대통령실에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혁신당,尹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조국 "정권 종식 끝난타임 놓쳐선 안돼"

조국혁신당은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담긴 탄핵 사유는 모두 15개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명품백 수수 논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의혹 등이 포함됐다.

또 재의요구권(거부권) 남용, 채해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직권남용 탄핵 사유로 들었다. /김진수기자

조국 대표는 회견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할 끝난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공개한 초안에 더해 향후 국민 제보 등을 종합해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다. 한편, 헌법 제6조는 대통령의 탄핵 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직권남용 탄핵 사유로 들었다. /김진수기자

과방위, 방통위 간부 인건비 등 대폭 삭감

과기부 예산 중 '김건희' 관련 의혹 사업 전액 삭감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건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안에 담긴 방통위 본부 총액 2억5천만원, 운영 지원과 기본 경비 3억원, 기획조정관 기본 경비 6억8천만원 등을 삭감했다. 삭감 액수 대부분은 방통위 간부 인건비다. 야당은 방통위가 위법적으로 2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공석인 상임위원 3명이 언제 임명될지도 알 수

없는 데도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축적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인건비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장의 연봉을 삭감(2억4천만원)하고 이를 평직원 처우 개선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중에서도 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한 사업은 전액 삭감됐다. 범부처 연구개발(R&D) 조정 사업 예산 20억원 등 각종 R&D 예산은 증액된 가운데 민간 합작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사업 R&D 예산은 63억원 감액됐다. /김진수기자

방수제 · 바닥재 · 혼화제 · 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흙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생산 품목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²
 [DK-303] 상도코팅방수제(녹색, 회색)셀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³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DK-306] 수용성 투명 발수제 / 탑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 & 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욕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특허청

DRUM DREAM

DRUM DREAM

자매품 바르는 황토벽지 천연황토코팅제 DK-308 황토리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드림케미칼코리아
DREAMCHEMICAL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